

안케패스 작전과 그 교훈

이 글은 국군이 월남에 파병된 이후
가장 치열하게 치른 전투중의 하나인
안케패스 작전시의 전투 상황을 정리해 봄으로써,
그 당시의 전투방법과 전투 능력을
재평가해 보기 위하여 기술한 것이다.

서 언

국군이 월남에 파병된 것은 1964년 9월 22일 대민진료를 위해 제1이동외과병원이 봉타우(Vung Tau)에 상륙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어 1965년 건설지원단과 해병 제2여단, 그리고 수도사단이 파월되었으며, 1966년에는 제9사단이 증파되었다.

월남의 자유수호가 곧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유지에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파병된 연 31만명의 한국군은 8년간에 걸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공산군을 섬멸하기 위한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그 중에서도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가 1972년 4월에 실시하였던 안케패스(An Khe Pass) 작전은, 국군파월사상 가장 치열하였던 월맹군과의 싸움이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한 지도 만 11년이 지났으나, 이 월남전에서 얻은 교훈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안케패스 작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돌이켜 보기로 한다.

월맹군의 춘계대공세 1972년도 미국의 대월남정책은 월남전의 월

남화를 마무리하고 아울러 파리평화회담을 타결하는 것이 기본목표였다. 월남전의 조속한 종결은 닉슨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반전여론을 무마하고 그의 선거공약을 실현하는 동시에,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의 재선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1972년 2월 21일, 닉슨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공을 방문하였다. 이는 냉전을 지속하던 미·중공간의 관계를 화해로 전환하는 한편, 중공으로 하여금 월맹 당국에 압력을 넣어 휴전협정을 수락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월맹은 이와는 반대로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 지 한달이 지난 1972년 3월 29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월남의 공산화를 위해, 월맹군 12개 사단을 월남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의 3개 방면으로 투입시켜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1972년의 춘계대공세이었다.

이와 같이 월맹군이 3개 축선에서 대공세를 전개하자, 4월 7일 미국은 대규모의 북폭을 감행하였으나, 적은 더욱 기세를 떨치며 북부와 중부의 일부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전황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4월 16일부터 북폭의 범위를 하노이와 하이퐁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미 해·공군에 의한 해상봉쇄와 대량폭격을 실시하여 월맹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전세의 불리함을 깨닫고 미국측에 파리평화회담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1972년 5월 4일 이후 중단되었던 평화회담이 7월 13일부터 다시 열리고, 막후교섭을 위한 키신저와 레독토와의 비밀회담도 병행 실시되었다.

한편, 월남군은 미 해·공군의 대대적인 화력지원하에 3개 축선으로 침투한 월맹군에게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월맹군을 격퇴하고 9월 말에는 춘계대공세 이전의 상태로 실지를 회복하였다.

안케패스 작전의 배경

안케패스 작전은, 당시 실시되었던 월맹

군 춘계대공세의 일부로, 월맹군의 일부 병력이 월남 중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월남군 제2군단의 주요병참선(19번도로)인 안케패스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한국군 수도사단 제 1기갑연대가 이 도로의 소통을 목적으로 실시한 작전이다.

이 지역은 향도 퀴논(Qui Nhon)에서 월남 제2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플레이쿠(Pleiku)에 이르는 19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표고 600m의 고원지대로서, 월남 제2군단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병참로상의 요지이다.

월맹군은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을, 그들의 춘계공세 이전에 점령하기 위하여 1972년 3월 중순, 그들의 226기지에 숨어 있던 제3사단 제12연대(1,565명)를 남진시켜 이 지역에 위치한 638고지를 비롯한 주요지점을 확보하게 하고, 그 곳에 강력한 저항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당시, 수도사단은 철군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안케패스 일대에 침투한 적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4월 11일 05시에 제 1기갑연대 제1중대 전술기지에 월맹군 세이파 1개 분대가 공격해 오으로써 월맹 정규군과의 격전이 시작되었다.

작전경위

이렇게 시작된 이 작전은, 제1기갑연대가 안케패스에 침투한 월맹군 제3사단 제12연대를 격퇴하고 19번 도로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1972년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되었다.

4월 11일 05시에 1개 분대 규모의 적 세이파가 제1중대 기지에 침투하자 동 중대는 이를 격퇴하였으며, 같은 날 10시에는 수미상의 월맹군이 19번도로에 나타나 교량과 도로를 폭파하였으나 사단공병중대가 출동하여 이를 복구하였다.

그러나, 적은 12일 07시에 다시 안케패스를 차단하고 주변의 주요지형을 장악함으로써 퀴논에서 플레이쿠에 이르는 월남 제2군단의 주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와 같이 19번도로가 차단되자, 제 1기갑연대는 적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대수색중대와 제3중대를 10시에 안케령으로 공수하여 탐색전을 실시하던 중, 적의 기습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제1중대기지로 철수하였다.

연대는 안케패스 일대의 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게 되자, 4월 13일부터 제1대대에 3개 중대를 배속시켜 대대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를 거듭하자, 사단은 4월 18일에 증강된 연대 규모의 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1중대 전술기지의 적 세이파 공격 제1중대기지는 빈케(Binh Khe) 마을로부터 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안케령의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곳은 표고 600m의 경사도가 완만한 구릉지대이다. 이 기지 외각에 구축된 30개소의 초소에는 제1소대와 화기소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내각에는 4.2인치와 81밀리 박격포 각 1개반이 방렬되어 적의 예상접근로에 대한 화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대기지에서 동쪽으로 제2소대가 2km, 제3소대가 4km 떨어진 19번도로의 남쪽 무명고지에 각각 소대기지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중대는 제2소대기지를 지리산기지, 제3소대기지를 백두산기지라고 호칭하였다. 이와 같이, 3개 지역에 전술기지를 편성한 제1중대는 7.5km에 달하는 안케패스를 장악하고, 모든 차량과 인원의 왕래를 통제하면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72년 4월 2일, 중대장으로 부임한 김종식 대위는 22개월 동안의 기지방어에서 오는 해이된 중대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부대 훈련을 강화한 다음, 11일 이시를 기하여 전 중대원을 진지에 비상투입하였다.

04시경, 기지내를 순찰하던 부중대장으로부터 제3초소 전방에서 조명

지뢰 1발이 폭발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바람 한 점 없는 그 시간에 지뢰가 터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홍문희 상병이 근무하는 제3초소로 갔다. 약 1시간이 지난 05시경에 다시 제3초소 전방에서 조명 지뢰 1발이 폭발하면서 검은 물체가 나타나자, 홍 상병은 크레모아를 격발하고 이에 호응하여 중대원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여 15분간에 걸친 교전이 벌어졌다. 날이 밝은 후, 주변을 수색한 결과 검은 팬츠만 착용한 반나체의 월맹군 사체 5구를 발견하고 B-40척탄통 2문과 AK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그 후 10시경, 퀴논에서 플레이쿠로 가던 월남 민간화물차 1대가 지리산기지에서부터 서쪽으로 700m 떨어진 지점의 도로상에 반경 4m 정도의 폭파구가 패인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제2소대기지에 통보하였다. 소대장 이우영 중위는 14명의 소대원과 같이 10시경 이를 확인한 결과, 자대 병력으로는 복구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단공병중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14시경에 도착한 공병중대 작업반은 제2소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폭파지점의 우측으로 임시통로를 만들어 17시에 도로를 개통시켰다.

19번도로 차단과 탐색전 이미 안케패스에 침투한 월맹군은 4월 12일 07시를 기하여, 교량 2개소와 도로 3개 지점을 폭파시켜 다시 19번도로를 완전차단하였다. 그리고, 안케패스 주변의 중요고지를 점령한 그들은 제1중대기지를 비롯하여, 지리산과 백두산기지에 82밀리 박격포 및 B-40척탄통 사격을 무차별로 가하여 일대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월맹군은 638고지에 강력한 거점을 확보하고 불과 500m 정도의 거리인 제1중대 기지에 75밀리 무반동총 사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중대는 중대 탄약고와 관망대, 그리고 전사면의 초소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제1기갑연대장 김창열 대령은 적의 규모가 얼마이고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우선 연대예비대인 수색중대를 투입하여

안케령으로부터 19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탐색전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제3중대를 제1중대기지 후사면으로 공수하여 제1중대기지를 보강하였다.

연대수색중대장 임규섭 대위는 10시에 3개 소대와 포병관측반을 지휘하여 헬리콥터 편으로 중대기지를 이륙, 11시반에 제1중대 기지에서 북쪽으로 700m 떨어진 19번도로변에 착륙하였다. 곧, 중대장은 그곳에서 제1소대를 착륙지점에서 북동쪽으로 500m 떨어진 무명고지에, 제2소대를 553고지 남쪽 하단부의 19번도로에, 제3소대를 638고지 좌측 계곡에 각각 전개시켰다.

임진우 중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는 13시경, 553고지 하단부를 거쳐 19번도로를 횡단하여 평탄한 언덕에 접어들었다. 이때, 남쪽 무명고지에 숨어 있던 수 미상의 월맹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동 소대는 소대장을 포함한 6명이 전사하고 뒤를 따르던 중대장이 중상을 입었다.

부상당한 중대장은 638고지 좌측 계곡을 수색중인 제3소대장 정종태 중위를 무전으로 불러 중대의 지휘를 지시하였다. 정 중위는 즉시 638고지 좌측 계곡에 대한 수색을 중지하고, 15시경 중대장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정 중위는 곧 중대장을 19번도로변의 안전지대로 후송하고, 제2소대장 외 5구의 사체를 회수하기 위한 전투를 개시하였다. 먼저, 제1소대장 김진홍 중위에게 엄호사격을 부탁하고 백석만 하사 외 9명을 19번도로 남쪽 배수로상에 배치하였다. 정 중위는 병사들에게 완수신호를 보내 목표를 향하여 각개약진을 명령하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갔으나, 전령 고광곤 일병만이 뒤를 따랐을 뿐 다른 병사들은 배수로에서 움직이지 않아 사체를 회수하지 못한 채 30분이 경과하였다. 이때, 뒤에서 엄호사격을 실시하면서 전황을 지켜보던 제1소대장 김진홍 중위가 이에 가담하기 위하여 전진하던 중 적의 사격을 받고 전사하였다.

이때, 연대본부에서 수색중대의 전투상황을 제1중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연대장은 더 이상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하여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수색중대는 7구의 사체를 현장에 남겨 둔 채, 20시경 제1중대기지 후사면으로 철수하였으며, 이날의 탐색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한편, 연대본부에서는 16시에 연대장과 3개 대대장이 모여 긴급작전회의를 개최하고, 안케패스 일대에 대한 전황을 분석하였다.

연대장 김창열 대령은 월남 제2군단의 생명선인 19번도로가 완전차단되고, 안케패스 일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월맹군의 춘계공세와 연계된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조속히 격퇴하기 위하여 제6·10·11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시켜 13일부터 대대작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작전을 실시하게 된 제1대대장 한규원 중령은 배속받은 제6중대를 무명고지에, 제10·11중대를 19번도로변에, 그리고 제3중대를 638고지에 각각 투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중대장에게 출동준비를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안케패스 작전은 3개 지역(638고지, 무명고지, 19번도로변)에서 동시에 전투가 개시되었다.

638고지 전투

제3중대의 투입 638고지는 제1중대기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m 떨어져 있었으며, 중대기지보다 38m가 높은 지대로서 전 작전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곳이다. 제1대대장은 638고지전투를 지휘하기 위하여 4월 12일 14시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빈케로부터 제1중대기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장은 12일 제1중대기지 후사면에 공수된 제3중대를 13일 09시반에 최초로 638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3중대장 고정소대위는 제1소대와 배속받은 제2중대 제2소대를 전면에, 제3소대를 예비로 하여 638고지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측을 담당한 제1소대가 13시반경 8부능선에 도착하였을 때, 638고

지 정상의 월맹군으로부터 B-40 척탄통과 소총사격을 받게 되자 피아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동 소대는 월맹군 3명을 사살하였으나 소대원 3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을 입어 공격이 돈좌되었다.

한편, 안케패스 일대의 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1시경 제1중대기지를 방문한 사단장 정득만 소장 일행은 중대관측소에서 638고지에 대한 작전을 협의하고 있었다. 이때, 638고지 후사면에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월맹군의 82밀리 박격포탄 10여 발이 기지 주변에 떨어져, 사단 작전참모 구경희 중령이 중상을 입었다. 사단장 일행은 곧 그 곳을 떠나 사단사령부로 돌아갔다.

그 후, 4월 14일 06시경 제1중대기지에 또다시 월맹군의 82밀리 박격포탄 6발이 낙하하여 4.2인치 박격포 1문이 파손되고, 탄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포탄 42발이 폭발하면서 막사에 있던 병사 4명이 전사하였다.

13일 제1차공격에서 실패한 제3중대는 이날 08시에 제2차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원은 분대단위로 구간약진하여 12시경 9부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고지 정상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의 사격으로 2명이 전사하고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동 중대는 제1중대기지로 철수하였다.

제1대대장은 2일만에 걸친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연대의 가용화력을 총동원하여 안케패스 일대에 공중폭격과 포병사격을 집중시켰다. 이때, 제61포병대대와 제628포병대대는 2일 동안에 2,909발의 각종 포탄을 사격하였으며, 미제7전술공군의 F-4 전폭기도 143,000 L/B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날 연대수색중대가 제1대대에 배속되었다.

사단작전회의 개최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안케패스 일대에서 7일만에 걸쳐 실시한 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단은 17일 14시에 빈케에 있는 제1기갑연대 본부에서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야전사 부사령관 강원채 소장을 비롯하여, 사단장과 각 연대장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석상에서 사단장 정득만 소장은 안케패스

의 차단으로 월남 제2군단의 보급로가 두절되어 동 군단은 고전중에 있으며, 월남군 총사령부와 주월 한국군사령부에서 조기에 안케패스를 개통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보유하고 있는 가용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안케패스 작전을 4월 18일부터 증강된 연대작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작전을 지시하였다.

- ① 한국군이 왜 월남에서 싸우는가 하는 의의를 전 장병에게 주지시켜 전투의욕을 고취시키라.
- ② 적의 거점을 빨리,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여 우선 항공과 포격으로 적의 진지를 무력화시킨 후 공격부대를 투입하라.
- ③ 제1대대가 7일간 실시한 작전경위를 보면, 각 중대의 공격방법이 거의 일률적이며, 병력을 축차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병력을 집중운용하고 공격방법을 다양화하라.

이리하여 증강된 연대작전으로 전환된 안케패스 작전은 제1대대가 638고지 공격을 계속하고, 제2대대가 무명고지 전투를, 제3대대가 19번도로 개통작전을 제1대대로부터 인수하여 각각 실시하게 되었다.

제1연대 제8중대의 증원 4월 18일 08시를 기하여 연대작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1연대 제8중대 병력 95명이 시누크 3대에 탑승하여 14시경에 제1중대기지 북쪽의 19번도로변에 착륙, 제1대대에 배속되었다.

이로써 638고지의 공격부대는 3개 중대로 증강되었으며, 이날의 공격 계획은 제3중대와 수색중대가 적과 대치하는 가운데, 제1연대 제8중대가 638고지를 19일 여명에 점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1연대 제8중대는 18일 23시경에 제1중대기지를 출발하여 7부능선을 따라 기동을 개시하였다. 이 중대가 19일 05시경 638고지 후사면의 8부능선에 도착하여 돌격대형으로 산개하는 그 순간, 638고지에서 남쪽으

로 약 500 m 떨어진 능선에서 사격하는 월맹군의 82밀리 박격포탄 20여 발이 제3소대 지역에 떨어져, 중대원 2명이 전사하고 소대장 김남구 중위 외 3명이 부상하였다.

중대장으로부터 교전상황을 보고받은 제1대대장은 제8중대가 적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중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대대장은 그 동안 많은 피해를 입은 제3중대를 15시에 중대전술기지로 철수시키고, 다음날 제2중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20일, 제1대대장은 제1연대 제8중대와 수색중대를 다시 전면공격에 투입하고, 제2중대를 예비로 하는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연대 제8중대와 수색중대는 적으로부터 감제되는 불리한 지형을 극복해 가면서 15시반에 8부능선까지 접근하였다. 이때, 638고지 후사면에서 발사한 적 82밀리 박격포탄 50여 발이 8부능선에 떨어져,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제8중대장 김용강 대위가 전사하고 사병 12명이 부상을 입어 공격은頓挫되었다.

한편, 연대 전술지휘소 부근에 이날 적 82밀리 박격포탄 200여 발이 낙하하여, 제61포병대대 제1포대의 105밀리 곡사포 1문이 완파되고 2문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2중대의 투입 안케패스 작전이 개시된 지 10일이 지났으나, 전투는 거의 담보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안케패스 일대에 침투한 월맹군이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는 데 기인되었으나, 무엇보다도 공격부대가 동일한 공격기동로에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반복적인 공격을 시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1대대장은 전혀 공격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채, 22일에도 638고지 공격을 계속하였다. 즉, 제8중대와 수색중대를 5부능선에서 적을 견제하도록 하고 제2중대를 전면공격에 투입하였다.

진무웅 대위가 지휘하는 제2중대는 10시부터 13시 사이에 2회에 걸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8·9부능선에서 적의 저항에 부딪쳐 15명의 사상

자를 내고 공격대기지점으로 물러섰다. 이와 같이 공격이 실패한 이유는 병사들의 전의가 저하되어 있었고, 사상자 1명을 후송하는데 2명의 병사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전투병력의 감소에도 원인이 있었다.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임무의 중요성을 설득시켜 제3차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때, 대대장으로부터 드럼공격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드럼공격은 공드럼 속에 흙을 넣어 이를 방호물로 삼고, 2명 1개 조가 되어 밀고 올라가는 원시적인 공격방법이었다.

15시에 개시한 드럼작전은 지형의 경사가 심하고, 나무뿌리 돌뿌리 등의 거친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드럼통이 잘 굴러지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적의 목표물이 되었으므로 중대장은 이 공격방법을 포기하였다.

그 뒤 17시경 제4차 공격을 실시할 때에는 대대장 한규원 중령이 중대장 진무웅 대위가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여 공격을 독려하자, 중대장은 소대장 위치에, 소대장은 분대장 위치에 각각 나아가 공격에 가담하였다.

그 결과, 18시경 좌측에서 공격하던 제1소대장 임동춘 중위가 적의 제1선 벙커에 직접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진입한 끝에 이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우측의 제3소대도 거의 같은 시간에 월맹군의 제1선 진지를 탈취하였다. 이때, 적이 발사한 B-40척탄통 10여 발이 떨어져 임동춘 중위가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2선을 향해 계속 돌진하던 중 적의 저격을 받아 전사하고 소대원 4명이 부상하였다. 이날, 제2중대는 4회에 걸쳐 638고지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모두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638고지 공격에서 연일 사상자가 속출하고 전투가 실패를 거듭하자, 연대장은 23일 10시에 제1대대 지휘소에 도착하여 새로운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제2중대와 수색중대, 그리고 제1연대 제8중

대로 전면에서 적을 견제하도록 하고, 새로이 제4중대를 우측 능선으로, 제9중대를 좌측 계곡으로 각각 우회시켜 638고지를 후사면에서 공격하는 양면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기지에 있던 제4중대와 안케패스 작전 중이던 제9중대가 16시에 제1중대기지에 집결하여 4월 24일의 여명공격을 준비하였다.

638고지 점령 4월 24일 04시부터 06시까지 제61포병대대와 제628포병대대가 638고지를 비롯한 적의 예상은거지에 약 1,300발의 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하는 동안, 제4중대는 05시에 제1중대기지를 출발하여 638고지를 향해 진출하였다.

제3소대장 이무표 중위는 27명의 소대원을 지휘하여 수색중대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7부능선에 06시경 도착하였다. 이 곳에서 이 중위는 앞에 있는 능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소대원을 우측으로 약 70m 우회시켜 완만한 능선으로 이동하여 8부능선까지 진출하던 중, 적의 사격을 받고 선두의 병사 1명이 전사하였다.

소대장 이 중위는 적의 사격량으로 보아 고지에 있는 적이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여 전진속도를 늦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였다. 07시경 돌격선에 도착한 제3소대는 고지 정상에서 수명의 적이 후사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일제히 수류탄과 소총사격을 가하면서 정상으로 돌진하였다.

이때, 적은 고지를 포기하고 도주하였으며, 교전 없이 07시반경에 638고지를 점령한 제3소대장 이무표 중위는 고지 주변에서 적 시체 4구를 발견하였다.

제1중대기지에서 공격을 지휘하던 제1대대장은 08시를 기하여 7부능선에 있던 3개 중대를 638고지 정상으로 이동시켜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동시에 진지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색중대가 동쪽을, 제1연대 제8중대가 서쪽을, 제4중대가 남쪽을, 제2중대가 북쪽을 각각 담당하여 진지작업을 하던 중, 09시

경 반항(Ban Ngan)계곡에서 사격한 월맹군의 82밀리 박격포탄 18발이 떨어져, 제2중대장 진무웅 대위 외 7명이 부상하였다.

한편, 좌측을 담당한 제9중대는 03시에 집결지를 출발하여 05시경 638고지 후사면에 도착할 무렵, 월맹군의 산발적인 사격을 받았다. 월맹군의 진지가 경사진 상단부에 위치해 있던 관계로 중대의 진출이 완전 노출되자, 전면공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중대장 안영식 대위는 제1소대장에게 좌·우로 돌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소대장 정한모 중위는 양측방으로 소대를 나누어 정상으로 진출하게 하자, 좌측의 제2분대가 2개의 진지를 제압하고 적과 대등한 지형을 점령하였다. 14시부터는 공중과 지상에서 638고지 후사면 일대의 적 예상은거지에 집중사격을 가하였고, 이에 적은 동 지역을 이탈하여 반항계곡 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호기를 잡은 제9중대 장병은 일제히 638고지 후사면으로 진출하였으며, 그 곳에서 월맹군 시체 6구를 확인하고, AK 소총 2정을 노획하였다. 이로써 제1대대가 12일간에 걸쳐 실시한 638고지 전투는 종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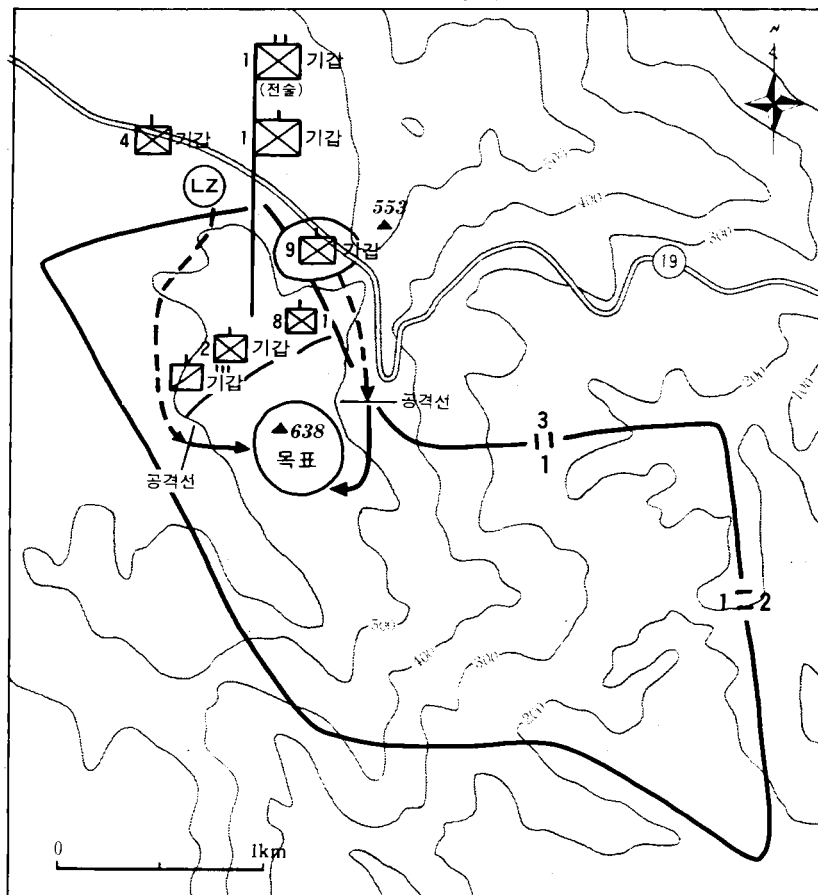
무명고지 전투

제6중대의 고립방어 1972년 4월 12일 제6중대장 정태경 대위는 연대 긴급작전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제2대대장 한영수 중령으로부터, 13일 08시를 기하여 제1대대에 배속되어 안케패스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지시를 받았다.

중대장은 곧 소대장들을 중대장실에 집합시켜 출동준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도상으로 무명고지 일대의 지형을 연구하였다.

이 무명고지는 소도(So Do)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638고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역으로서, 표고 300~400m의 봉우리가 여러 개 솟아 있으며, 적정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638고지 공격



4월 13일 08시, 헬리콥터 5대가 연병장에 도착하였다. 침병소대인 제2소대는 1대에 6명씩 탑승하고 중대기지를 떠나,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나”고지를 향하여 공중기동을 개시하였다. 소대장 강희수 중위가 탑승한 제1번기와 제2·3번기는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나”고지 안부에 내렸다. 그러나, 제4번기는 착륙하려는 순간, 주변고지에 숨어 있던 적의 기습적인 대공사격과 포격을 받아 제5번기와 함께 기지로 되돌아갔다.

뒤이어, 제2제대로 편성된 중대장조와 제3소대가 “나”고지 상공에 도착하여, 그 전에 지상에 내린 제2소대의 엄호사격을 받으면서 38명이 무사히 착륙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적의 대공사격으로 착륙이 불가능하였다. 이때가 11시반이었으며, 공중기동을 개시한 지 3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 안부에 내린 제6중대 병력은 장교 4명과 사병 52명이었으나 랜딩 도중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약 20%의 전투력을 상실하였다.

중대장 정태경 대위는 병사들을 2명 1개조로 편성하여, 1명은 호를 파고 1명은 경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약 20분 후, 무장헬리콥터가 작전지역 상공을 돌면서 적의 거점에 기총사격을 실시하는 틈을 타서, 중대원들은 최소의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야간방어에 임하였다. 중대장은 고립된 그 안부지대를 벗어나 중대원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방안으로, 14일 북쪽의 무명고지를 공격할 것을 결심하였다.

14일 08시에 중대장은 제3소대장 손창윤 중위에게 북쪽의 무명고지 공격을 지시하였다. 17명의 소대원을 선발한 손 중위는 09시에 현 접촉선을 출발하였다. 이들이 약 120m 전진하였을 때, 남과 북의 양 봉우리에서 적의 강력한 사격을 받아 제3소대는 4명의 사상자를 내고 공격이 돈좌되었다. 손 중위는 14시까지 4회에 걸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8시경에 안부로 철수하였다.

한편, 13일 공중기동이 중단된 제1소대와 제3소대 일부병력이 14일 13시에 공중기동을 재개하여 “가”고지에 착륙을 시도하여 제3소대 화기분대장조만 착륙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착륙 도중 사병 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동 화기분대장은 분대원 3명과 함께 부상자를 번갈아 등에 업고는 신속히 “가”고지 정상을 벗어나 우측 계곡으로 피신하였다. 이 곳에서 2시간 동안 적의 동정을 살핀 분대장은 야음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데리고 6시간의 악전고투 끝에 21시경 소도 산으로 철수하였다.

14일 무명고지 공격에 실패한 제3소대장 손창윤 중위는 15명의 특공

대원을 편성하여, 15일 07시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다. 특공대원이 목표를 향하여 접근하는 동안, 안부의 중대병력은 양쪽 봉우리에 팽소처럼 사격을 가하여 적을 기만하였다. 08시경 목표 8부능선에 도착한 특공대원은 소대장의 완수신호에 따라 일제히 수류탄과 소총사격을 가하면서 돌격을 감행하였다. 기습을 당한 적은 거점을 포기하고 바라(Ba La)계곡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 중대는 월맹군 5명을 사살하고 개인화기 4정과 실탄 1,500여 발을 노획하였다.

중대장은 특공대장에게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안부에 포진한 중대병력을 동 고지로 이동시켜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진지작업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 남쪽 무명고지에서 발사한 월맹군의 82밀리 박격포탄 30여 발이 낙하하여, 중대장 정태경 대위와 제3소대장 손창운 중위, 그리고 포병관측장교 김무영 중위가 중상을 입고 사병 5명이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제6중대는 북쪽 무명고지를 점령하였으나, 그 주변의 높은 고지에서는 이 무명고지에 대한 월맹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연대장은 제6중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제5중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제5중대의 증원 4월 15일 13시경, 제5중대는 공중기동을 개시하여 16시에 소도산에 착륙하였다. 중대장 안영소 대위는 지체없이 “가”고지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고지를 점령한다면, 제6중대를 구출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감제도 가능하였다. 중대장은 소도 산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능선을 공격개시선으로 선정하여 17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약 1시간이 지난 18시경에 제2소대가 “가” 고지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일몰이 되었으므로, 중대장은 다음날 공격할 것을 대대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제6중대의 구출이 시급하여 승인되지 않았다. 중대장은 무명고

지에 진출한 제2소대를 현지에 잔류시키고 후속하던 제1소대를 초월 공격하게 하였으나, 8부능선에서 적 B-40 척탄통 사격을 받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19시경에 소대를 4부능선으로 철수시켰다.

다음날 05시, 제5중대장은 여명에 제1소대와 제3소대를 그 곳에 다시 투입하였다. 그러나, 06시경에 7부능선에서 공격기도가 적에게 폭로되어 사병 3명이 부상을 당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 2개 소대는 12시반경까지 3차에 걸쳐 “가”고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월맹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제3소대장 이강열 중위가 전사하고 사병 4명이 부상하여 공격은 실패하였다.

한편, 13일부터 무명고지에서 고립방어를 하고 있던 제6중대장 정태경 대위는 16일 09시에 대대장으로부터 제5중대가 구출작전을 실시중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희망에 부풀었으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4일째 물보급을 받지 못한 병사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문제였다.

이날 09시경부터 12:00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헬리콥터에 의한 물보급을 시도하였으나, 월맹군의 치열한 대공사격으로 헬리콥터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실패하였다. 부상병들은 아픔과 갈증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사병도 전투의욕이 점점 저하되어 갔다.

사단장 정득만 소장은 안케페스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13시경 소도산에 착륙하였다. 이 곳에서 사단장은 제6중대장 정태경 대위를 무전으로 불러 계속 선전할 것을 격려하고 병력증원과 물보급을 약속하였다.

14시에 세 번째의 물보급이 실시되었다. 헬리콥터 2대가 F-4전폭기의 엄호사격을 받아 가면서 900피트 상공에서 105밀리 탄통에 담은 10통의 물을 투하하였다. 그 중, 6통은 바위에 떨어져 부서지고 4통만이 보급되었다. 이 4통의 물로써 4일간 시달린 병사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었다.

물보급이 끝나고 각 병사들이 자기 호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돌연 남쪽 무명고지 후사면에서 월맹군이 사격한 82밀리 박격포탄 30여 발이 진지상에 떨어져 제2소대장 강의수 중위가 전사하고 소대 무전병과 전령이 중상을 입었다.

4월 17일 07시경에 제5중대장은 “가”고지에 대한 3일째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미 제7전술공군의 F-4전폭기 2대가 15시경 작전지역의 상공에 출격하여 목표지점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한 중대장이 위치를 알리기 위해 적색연막탄을 피우자, “가”고지에 있던 적은 청색연막탄을 터뜨렸다.

작전지역 상공을 선회하던 미국 조종사는 이를 잘못 판단하여 네이팜탄 4발을 제5중대 병력이 배치된 지역에 투하하였다. 네이팜탄 1발이 50m 근거리에서 떨어져 3명의 병사가 화상을 입었다.

제5중대장은 3일간에 걸친 다섯 차례의 공격이 모두 실패하였으나, 다음날 다시 여명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중대장은 17시에 전 중대원을 4부능선으로 철수시켜 정비를 실시한 후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4월 18일 제5중대 제1소대장 권성진 중위가 지휘하는 24명의 특공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04시반에 “가”고지로 서서히 진출하였다. 제1조와 제2조가 제1선에 투입되고, 제3조는 예비로 후속하였다. 제1조장 김영덕 하사는 조원을 우측 능선으로 우회시켜 05시반경 7부능선에 먼저 도착하였다.

적의 저항이 없었으므로, 제1조는 좌측의 제2조와 연결을 위하여 잠시 진출을 멈추었다.

얼마 후 제2조가 도착하였다. 양개 특공조는 소대장의 완수신호에 따라 일제히 수류탄과 소총사격을 가하면서 정상을 향해 돌격하였다.

특공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우선 사주경계를 취한 후, 곧 전장정리에 들어가 아군의 포격으로 죽은 적 시체 12구를 확인하고 AK소총 2정과 실탄 700여 발을 노획하였다.

“가”고지의 점령을 보고받은 제5중대장은 제2소대를 무명고지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중대원을 “가”고지의 정상으로 이동시켜 진지를 구축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5중대장은 무명고지에 고립된 제6중대장 정태경 대위를 무전으로 불러 “가”고지의 점령을 알려 주면서, 오늘 중에 연결작전을 실시하여 구출할 것이니 하루만 더 선전하라고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부터 전투가 연대작전으로 전환되었다. 제1대대장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인수받은 제2대대장 한영수 중령은 소도산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연대 전술지휘소에 있던 사단장 정득만 소장은 정보참모 정사영 중령을 대동하고 10시에 소도산에 도착하였다. 이 곳에서 사단장은 제6중대장과 무전으로 교신한 후, 연대장에게 물을 보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2시경 2대의 헬리콥터가 8통의 물을 적재하고 제6중대 작전지역 상공에 이르러 적재한 물을 모두 투하하였다. 호 속에 있던 병사들은 투하된 물통을 보자 갈증을 참지 못한 나머지, 호를 뛰쳐나와 물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중대장 정태경 대위는 몰려 있는 병사들에게 자기 호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하였다.

바로 이때, 계곡에서 월맹군이 사격한 82밀리 박격포탄 50여 발이 무명고지 일대에 집중되었다. 물통 주변에 몰려 있던 병사들은 급히 호 속으로 대피하였으나, 사병 2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하였다. 호 밖에서 중대를 지휘하던 중대장 정태경 대위도 좌측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두 번째의 부상을 당한 중대장은 약 3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15시경 제2대대장 한영수 중령으로부터 야간철수명령을 수령하였다.

제6중대 장병들이 고립된 무명고지에서 철수준비를 하는 동안, 제5중대에 배속된 제6중대 제1소대 병력 32명은 소대장 유삼식 중위의 지휘로 20시경 동 무명고지 침투에 성공하여 중대본부와 합류하였다.

제6중대는 철수계획에 따라, 21시부터 “나”고지 주변에 무장헬기의

지상공격과 연막차장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3소대·제2소대·제1소대 순으로 도보철수를 개시, 23시경에 “가”고지의 정상에 무사히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 곳에서 부상자와 전사자는 대기중인 헬리콥터로 후송하고, 잔류 병력은 제5중대에 배속되어 “가”고지에 배치되었다.

제26연대 제2중대의 증원 4월 18일 무명고지에서 고립되었던 제6중대가 완전 철수함에 따라, 이 지역의 전투를 계속하기 위하여 사단은 제26연대 제2중대를 제1기갑연대에 배속시켰다.

제26연대 제2중대장 김영걸 대위는 18일 09시경에 중대전술기지가 있는 푸옥란(Phuoc Lanh)(1) 마을에서 공중기동을 개시하여 13시경 “가”고지에 착륙하였다.

제2대대장은 제5중대 본부와 제6중대 잔류병력을 “가”고지에 배치하고, 제6중대가 고립되었던 “나”고지에는 제5중대 제1소대와 제2소대를 진출시켜 진지편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배속받은 제26연대 제2중대를 “가”고지에서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무명고지로 이동시켜 다음날의 전투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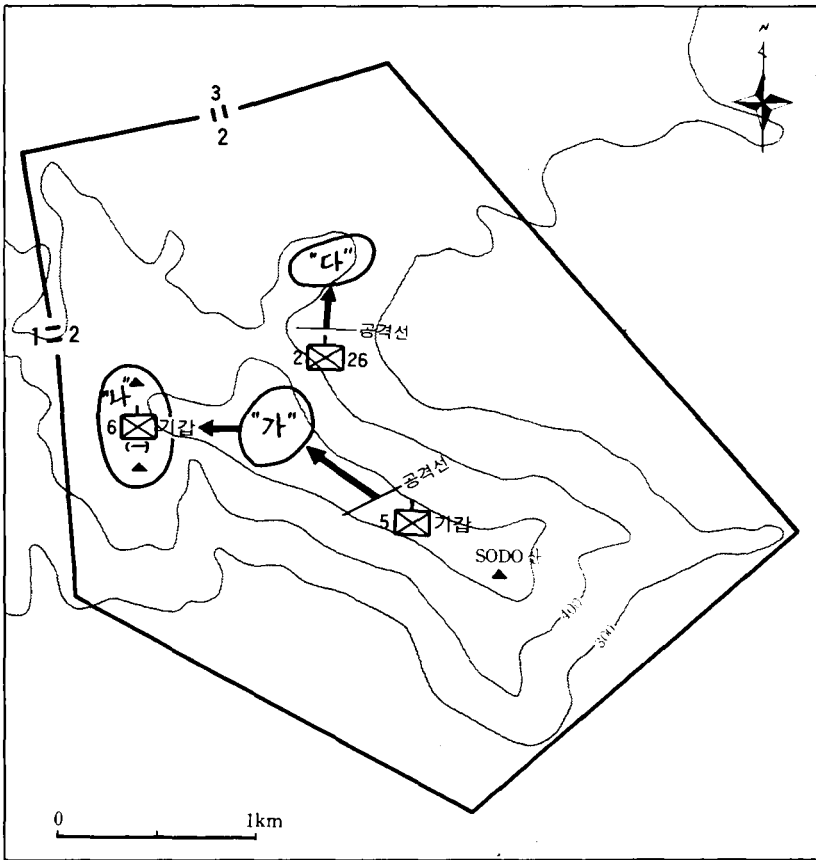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제2대대가 “가”고지를 중심으로 한 무명고지를 확보하였으나, 제1대대의 작전지역인 638고지와 의 사이에 있는 부웅쏘아이(Vuon Xoai)계곡과 그 일대의 고지에는 아직도 많은 월맹군이 거점을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이날 하루동안 1,245발의 포탄을 사격하여 적을 제압하였다.

제26연대 제2중대는 4월 20일 08시경, 부웅쏘아이 계곡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다”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기동을 개시하였다.

이 지역은 지형이 가파르고 수림이 무성하였으므로, 중대는 일렬종대로 서서히 진출할 수밖에 없어 17시경에야 목표 하단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 중대장 김영걸 대위는 중대원을 공격대형으로 전환시키기

무명고지 공격



위하여 일단 전진을 중지하고 제1소대장과 제2소대장에게 공격진로를 지시하고 있었다.

이때, 좌측 능선에서 경계하고 있던 제1소대 제1분대원 1명이 위치 불명의 적으로부터 저격을 받고 전사하는 순간, 80밀리 박격포탄 20여 발과 B-40 척탄통이 울창한 나무가지에 맞으면서 그 파편이 아래로 비산하여 공격대기중인 중대원 80명 중에서 17명의 중상자와 18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18시경, 김영걸 대위는 제5중대장에게 상

황판단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곧 병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는 이미 밤이 되어 병력을 기동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김 대위는 대대장에게 보고한 후 20시경 “가” 고지의 우측능선으로 철수하였다.

제2중대는 이 곳에서 진지방어를 실시하면서 중대를 정비한 후, 24일 08시경 5대의 헬리콥터에 47명의 중대원을 탑승시켜 원기지로 철수하고, 제5중대가 주변에 대한 잔적소탕을 전개한 다음, 12일간에 걸친 무명고지의 전투를 종결지었다.

19번도로 개통작전

3개 중대의 투입 19번도로는 항구도시 귀논시에서 월남 제2군단이 주둔한 플레이쿠에 이르는 주보급로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시되어, 이 도로의 확보 여부에 따라 월남군 제2군단 작전의 승패가 판가름되는 곳이다.

이 안케패스는 제1중대가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정상 부근에 중대기지, 중간지점에 제2소대기지(지리산기지), 그리고 하단부에 제3소대기지(백두산기지)가 각각 도로를 따라 남쪽에 편성되어 있었다.

4월 12일, 안케패스를 완전차단한 월맹군은 제1중대기지과 지리산기지 사이의 중간지점에 강점을 구축하였는데, 지리산기지에서 바라볼 때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쪽의 강점이라고 불렀다.

월맹군은 이 서쪽의 강점과는 별도로 지리산기지과 백두산기지의 중간지점에 또 하나의 강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강점을 동쪽의 강점이라고 호칭하였다.

연대장 김창열 대령은 이 두 개의 강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3대대의 제10중대와 제11중대, 그리고 제2대대의 제8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시켜 안케패스에 투입하였다.

제10중대는 13일 10시경,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12시에 제1대대본부과

있는 빈케에 착륙하였다. 동 중대는 14일 11시에 지리산 기지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무명고지로 이동하여 진지편성을 완료한 후 주변 탐색을 개시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11중대장 조승옥 대위는 13일 11시경에 주둔지인 남탕(Nam Tang)비행장에서 C-47시누크 4대에 97명의 중대원을 탑승시켜 공중기동을 개시하여, 12시경 제1중대 전술기지 후사면의 19번도로상에 착륙하였다. 이 곳에서 제11중대장은 곧 12일 수색중대가 피습받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19번도로 양측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진출하던 제11중대는 15시반경 전일 수색중대가 교전한 장소에 도착하여, 제1소대장 김진홍 중위 외 6구의 시체를 발견하고 모두 한곳으로 모아 놓은 다음 야간매복으로 전환하였다. 4월 14일 13시에 연대로부터 공수된 영현백으로 전사자를 후송한 다음, 제11중대는 다시 안케패스 정상을 거쳐 553고지에서 북쪽으로 300m 떨어진 무명고지로 이동하여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차후명령을 기다렸다.

제2대대 제8중대장 이종운 대위는 13일 12시경에 중대기지에 도착한 트럭 4대에 중대원을 승차시켜, 19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12시반에 16번교량에서 하차하였다. 동 중대는 이 곳에서 도보로 이동을 계속하여 231고지에서 북쪽으로 700m 떨어진 무명고지에 진출하였다.

이로써 안케패스에 투입된 3개 중대는 우선 확보한 지역을 임시기지로 삼고, 제1대대가 실시중인 638고지와 무명고지 전투의 진전을 관망하면서 19번도로의 개통작전을 준비하였다.

적 위협하에 놓인 지리산기지 작전개시 7일 후인 4월 18일 08시부터 제1대대에서 실시하던 작전이 연대작전으로 확대되어 제3대대본부와 제9중대가 안케패스로 이동하였다.

제3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지리산기지에 도착하여 제1대대에 배속되었던 제10중대와 제11중대를 복귀시키고, 이미 작전지역에 투입된 제8중

대를 배속받아 총 4개 중대로 안케패스 개통작전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 전술지휘소가 설치된 지리산기지의 남쪽은 울창한 수림과 더불어 넓은 계곡이 펼쳐져 있고, 그 건너편에 638고지를 정점으로 한 긴 능선이 남동쪽으로 뻗어 있다.

이 능선은 지리산기지를 감제할 수 있는 요지이며, 이를 수중에 넣은 적은 능선 끝에 75밀리 무반동총 1정을 거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군지역으로 사격을 가하였다.

작전개시 후 적의 75밀리 무반동총탄이 연일 기지에 떨어져 소대 관망대를 비롯한 기관총진지, 81밀리 박격포 진지, 탄약고 등이 크게 파손되었다.

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이 75밀리 무반동총 진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105밀리 포사격을 수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진지가 두터운 엄개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22일 09시경 F-4 전폭기 2대가 75밀리 무반동총 진지에 72발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나, 거의 모두가 목표로부터 약간씩 빗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3일 2차폭격을 요청하자, 15시경에 다시 목표 상공에 출격한 F-4 전폭기 2대는 동쪽과 서쪽으로 상호교체폭격을 실시하여, 15시반경 이 진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쪽의 강점 공격 대대장은 동쪽 강점에 있는 적의 규모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곳에 1개 중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19일 11시에 제8중대장 이종운 대위에게 공격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강점 주변의 지형은 19번도로 북쪽에 150m 정도의 고지가 있고, 남쪽에는 도로와 병행하는 낮은 능선이 뻗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강점에 대한 공격은 지형상 북쪽에서 뻗어 내린 능선을 타고 하향식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더우기 적은 강점 부근에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될 뿐, 그 밖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임시기지인 호랑이기지에서 강점까지는 경사가 심하였으므로, 제8중대는 천천히 기동해 가던 중, 14시경 3부능선에서 위치 불명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사병 1명이 전사하고 중대장 이종윤 대위가 부상하였다.

4월 20일 09시에 정정상 대위가 새로이 제8중대장으로 부임하였다. 대대장은 무전으로 정 대위를 불러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오후부터는 강점공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뒤, 13시경부터 약 15분간, 백두산 및 지리산기지에 배치된 4.2인치 및 81밀리 박격포 4문이 실시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제8중대는 13시 조금 지나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소대를 선두로 하여 강점을 향해 진출하던 중, 침병분대가 2부능선에 도착하였을 때, 적으로부터 산발적인 사격을 받았다. 이때, 제2소대장 홍성재 중위는 전일과 같이 적의 조직적인 저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적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19번도로 쪽으로 과감하게 접근하여 동쪽의 강점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제1소대를 강점에, 제3소대를 호랑이기지에, 그리고 중대본부와 제2소대를 호랑이기지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무명고지에 각각 이동시켜 임시기지를 편성하고, 안케패스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도로경계를 강화하였다.

서쪽의 강점 공격 이 강점 부근의 지형은 19번도로 위로는 표고 250m의 능선이 가로놓여 있고, 도로 아래쪽으로는 넓은 계곡이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월맹군은 이 도로 밑에 매설된 큰 암거 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3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이 강점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고려하여 하향식공격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10중대를 좌, 제11중대를 우로 하여 양측방으로 병력을 투입하였다.

제11중대장 조승옥 대위는 18일 09시경, 중대를 지휘하여 임시기지인 느옥안(Ngoc an) 마을 북쪽의 구릉을 출발하여 강점을 향해 내려가던

중, 5부능선에서 월맹군의 82밀리 박격포 사격을 받고 제2소대의 사병 2명이 전사하고 3명은 부상하였다. 이때, 적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제11중대장은 곧 사상자를 수습한 후, 다음날 그 곳을 다시 공격하기로 하고 북쪽으로 약 300 m 철수하여 그 곳에서 야간매복을 실시하였다.

19일 03시에 야간공격을 개시한 제11중대 제1소대장 이상호 중위는 06시경 적의 강점에서 약 150 m 떨어진 도로 상단의 능선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제1분대를 우측으로 우회시키려 할 때, 적의 B-40 척탄통 20여 발이 낙하하여 소대장을 포함한 8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하였다. 제1소대는 소대원 28명 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거의 전투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생존자 11명도 사망으로 분산되었다.

이때, 후속하던 제2소대장 박무현 중위는 재빨리 소대원을 산개시켜 적 방향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하도록 조치한 후, 자신은 1개 분대를 직접 지휘하고 08시반경 제1소대가 교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생존자 1명과 부상자 9명을 구출하였으나, 8명의 사체는 남겨 둔 채 3부능선으로 철수하였다.

제3대대장은 이러한 전투상황을 지켜보다가, 우측에서 하향 공격을 하는 제10중대장 정석병 대위를 무전으로 불러 “현 위치를 알리라.”고 묻자, 그는 “3부능선에 도착하였습니다.”고 보고하였다. 대대장은, “3부능선에 제10중대가 내려섰다면 내가 진출상황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중대장은 당황하면서 “사실은 5부능선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와 의 협조된 병행공격이 실패하였음을 알게 된 대대장은 부득이 우측의 제11중대를 5부능선까지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4월 20일, 대대장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서쪽의 강점 공격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포병사격을 요청하였다. 제61포병대대 제1포대와 제2포대는 12시경 총 328발의 포탄을 이 지역에 사격하여 적을 제압하였다.

한편, 대대장은 다음날에는 19일의 전투에서 크게 손실을 입은 제11

중대를 하루 더 정비하도록 하고, 안케령에서 대기중인 제9중대를 새로 투입하여 제10중대와 상하에서 강점을 협공하도록 하였다.

21일, 공중과 지상에서 폭격이 진행되는 동안, 안케령에 있던 제9중대는 08시반에 기동하여 11시경 공격개시선인 19번도로의 하단부 능선에 도착하였다. 이 곳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한 제9중대장 안영식 대위는 제1소대와 제2소대로 하여금 병진공격하도록 하고, 제3소대는 그 위치에서 화력지원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14시경, 공격을 개시한 좌측의 제2소대가 먼저 19번도로 위에 오르는 순간, 적의 B-40 척탄통과 소총사격으로 공격이 돈좌되었으며, 사병 3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하였다.

한편, 도로 상단으로부터 하향식 공격을 실시중인 제10중대도 15시경 강점에서 불과 200 m 떨어진 능선에서 적의 기습사격을 받아, 제3소대장 김동진 중위 외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뒤로 물러났다. 이리하여, 제9중대와 제10중대가 강점을 상하에서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만 입은 채, 강점은 점령하지 못하였다.

제3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4일간에 걸친 강점공격에서 피해를 입은 전 중대를 22일부터 23일까지 재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 23일 05시경, 대대장은 사단장 정득만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작전에 관한 전언통신문을 받았다.

- ① 현재 제3대대가 수행하고 있는 19번도로 개통작전은 사단장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 ② 병력과 장비면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작전을 위한 지휘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 ③ 전술면에서 있는 지혜를 다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④ 금일중으로 19번도로상에 있는 1개소의 강점을 공격, 적을 격멸하여야 한다.
- ⑤ 작전이 부진하게 되면 원인을 규명, 지휘조치하겠다.

사단장의 전언통신문을 수령한 대대장은 이 통신문 내용을 전 중대에

전파시키고, 아울러 24일의 강점공격시에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24일, 대대장은 접근 가능한 지점까지 공격부대를 진출시켜 적을 기습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이날 05시에 제10중대와 제11중대를 공격지점으로 기동시켰다.

제11중대장 조승욱 대위는 553고지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진출하던 중, 4부능선에서 두 개의 능선으로 갈라진 것을 보고 제2소대를 좌측 능선으로, 제3소대를 우측 능선으로 각각 나누어 전진시켰다. 제3소대가 우측능선을 따라 전진을 계속하던 중, 11시경 강점의 180m 전방까지 접근하였을 때 월맹군의 82밀리 박격포탄 3발이 낙하하여 제1분대장이 전사하고 소대장 이대호 중위 외 5명이 부상하였다. 한편, 좌측 능선으로 진출하던 제2소대는 적의 저항 없이 19번도로에 도착하였으나 강점까지는 약 600m의 거리가 있었다.

대대장은 제11중대장에게 지시하여 19번도로에 도착한 제2소대를 도로 주변의 요지에 배치하여 임시기지를 편성하게 하였으며, 제2소대는 2개조로 나누어 도로 상단과 하단에 각각 임시기지를 구축하였다.

그 뒤, 제11중대는 일몰 때까지 그 곳에서 기다렸다가 18시경 적의 강점에 대한 야간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제2소대 선임하사 외 1명이 19번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강점 쪽으로 접근하던 중, 강점 170m 앞에서 도로의 하단부로 이동하는 월맹군 2명을 발견하고 이를 사살하였다.

이때, 뒤따르던 소대장 박무현 중위는 강점에 있던 적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 소대원을 일제히 강점 주변의 고지로 진출시켜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강점을 점령하였다.

한편, 좌측에서 공격하던 제10중대도 적과 접촉 없이 18시경에 강점 좌측의 19번도로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동시에 실시한 서쪽의 강점 공격은 7일 만에 종료되었다.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서쪽의 강점을 점령한 다음날인 4월 25일 10시를 기하여, 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부대 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제8중대에 제10중대 제1소대를 배속시켜 백두산 기지에서 지리산기지까지, 제10중대(-)를 지리산기지에서 서쪽의 강점까지, 제11중대를 서쪽의 강점에서 안케령까지로 각각 분할하여 19번도로 양편의 중요고지를 임시기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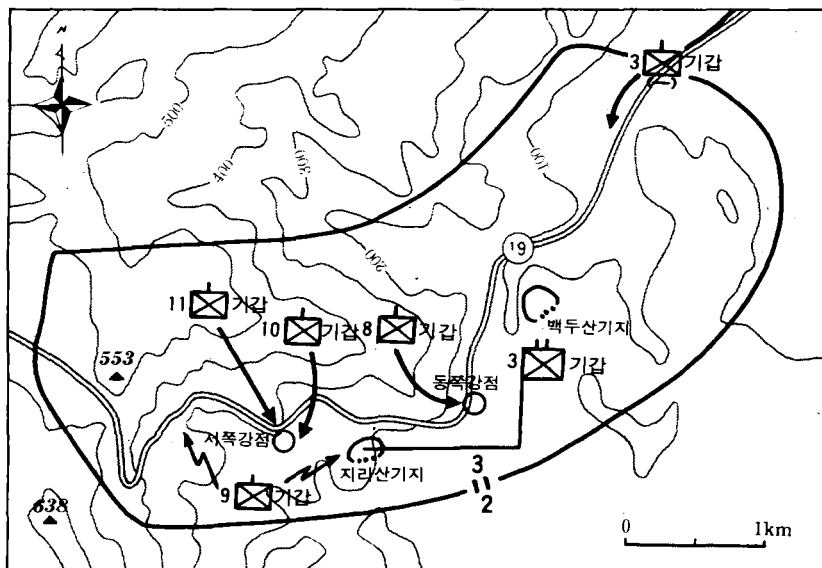
19번도로의 개통 4월 26일 제3대대가 개나리고지에서 안케령까지 7.5km에 달하는 19번도로의 중요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잔적소탕을 실시하는 동안, 연대 전술지휘소에서는 사단장 정득만 소장을 비롯한 연대장 및 참모들이 19번도로 개통을 위한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단장은 연대장 김창열 대령에게 16번교량을 경계중인 제3중대 제3소대를 차출하여 APC 4대에 분승시켜 19번도로 통과를 시도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본부에 집결한 제3중대 제3소대와 사단장갑중대 제2소대 제1반은 14시에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때, 제3대대장으로부터 19번도로변의 중요지점을 확보,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15시 정각에 장갑차 4대를 출발하도록 명령하였다.

제3중대 제3소대장 이경재 중위는 제1번 장갑차에 승차하여 15시 30분 개나리고지 앞을 지나 서서히 안케령으로 전진하였다. 이 도로개통조는 적의 저항 없이 도로가 폭파된 지점을 우회하여 16시경에 지리산기지 앞을 통과한 다음, 17시 10분 안케령에 도착하였다. 이 곳에서 약 20분간의 휴식을 취한 개통조는 17시 반에 안케령을 출발하여 연대 전술지휘소가 위치한 빈케에 18시 25분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16일만에 걸쳐 제 1기갑연대가 실시한 안케패스 작전은 모두 종료되었다.

19번도로 개통작전



결 언

제1기갑연대는 사단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안케패스 일대에 침투한 월맹정규군 제3사단 제12연대를 격퇴하고 19번도로를 개통시켰다. 이에 따라, 퀴논항으로부터 크메르 국경에 이르는 19번공로는 15일 만에 정상화되었으며, 콘툼—플레이쿠 지역에서 작전중이던 월남 제2군단에 대한 군수물자의 수송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작전이 종료되자, 월남 제2군단장 구옌 안 토안(Nguyen Yan Toan) 소장은 수도사단장에게 안케령에서 서쪽으로 약 30 km 떨어진 망양(Mang Yang) 패스까지의 경계임무를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단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제1기갑연대 제3대대를 안툽(An Tuc)읍으로 이동시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지역의 경계임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작전중이던 월남군 제47연대는 콘

툼—플레이쿠 지역에 투입되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는 본작전의 종료와 동시, 안케패스에 3개 중대의 병력을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여, 월남 제2군단의 차후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월맹군의 춘계대공세를 좌절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안케패스 작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

- ① 작전 1개월 전에 안케패스 일대의 중요지점을 월맹정규군이 점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적정파악의 결여)
- ② 적정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고 치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병력을 축차적으로 동일지역에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작전계획의 결여)
- ③ 월남전은 대부분이 수색과 탐색전이였으므로, 일단 밀림 속에서 정규전이 일어났을 때는 작전방법이 미숙하였다. (밀림에서 정규작전 방법 미숙)
- ④ 안케패스 작전 중 M-16소총 49정, 대검 116개, 방독면 253개, 방탄복 260개를 위시하여 많은 장비를 망실함으로써 장비관리가 소홀하였다. (장비취급의 소홀)

魏 泰 善(전사편찬위원)